

중 국

중국판권협회, 「저작권법 실시조례」 개정초안 좌담회 개최

2026. 08. 19.

국제협력팀

중국사무소

중국판권협회(中国版权协会)와 국가판권국 인터넷판권보호연구기지(国家版权局网络版权保护研究基地)는 2026년 8월 3일 베이징에서 <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개정초안(의견수렴안)>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으며, 중앙선전부 정책연구실·판권관리국 관계자와 중국판권협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소속 10여 개 회원기관 대표가 참석함.

○ 개정초안 주요 쟁점 논의

미구문화(咪咕文化), 더우인(抖音), 텐센트(腾讯), 콰이서우(快手), 인민교육출판사(人民教育出版社), 상무인서관(商务印书馆), 커다쑤페이(科大讯飞) 등 10여 개 회원사 관계자는 시청각저작물의 유형 구분,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저작물 유형 신설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의 명확화, 법정허락에 따른 사용료 지급체계 구체화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범위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산업·사법 실무·온라인 저작권 관리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환경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함.

○ 개정초안 주요 내용

이번 개정초안은 저작권의 권리체계와 저작물의 법적 정의, 권리귀속 및 행사 기준, 이용허락 및 저작권 거래규칙 등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물 인정·권리보호·공정이용·신산업 분야의 저작권 규율을 정비하는 한편, 행정집행과 사법판단의 기준을 통일하여 창작자·플랫폼 및 저작권 시장 참여자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음.

■ 참고자료

중국판권협회(中国版权协会)

- <https://mp.weixin.qq.com/s/2Tpqv-wuvOjRYN4OQK085Q>